

우리말

사회사업
말과
글을
바르게

말과 글을 바르게 쓰고 싶습니다.

2017년 7월 15일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02-822-2643

1. 강조 표현

1) 너무, 너무너무 → 무척, 매우, 아주, 대단히, 참, 참으로, 정말

‘너무, 너무너무’는 부정적 어감의 부사입니다. 정도를 지나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긍정하는 의미라면 ‘너무’ 대신에 ‘무척, 매우, 아주, 대단히, 참, 참으로, 정말’ 이런 부사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굉장히’는 크고 훌륭하다는 뜻이니 ‘크기’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꾸미는 데 씁니다.

너무 멋있어요.(재밌어요, 행복해요…) → 정말 멋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 참~ 정말, 아주 맛있어요.

진짜 안전할까? → 과연 안전할까?

진짜 복지인 → 진정한 복지인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일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다, 가까이하기 어렵다, 사귀자는 말을 못하겠다, 질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다, 정신 차릴 수 없다,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 가슴 아프다, 싫다, 좋지 않다는 따위의 부정적 의미입니다.

2) 되게

되게 (디게, 대개) → 아주, 몹시, 무척, 매우, 대단히, 참, 정말

되게 좋아요 → 아주 좋아요

‘되게’와 ‘진짜’는 어른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유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3) 강조표현의 남용

'정말, 굉장히, 진짜로, 솔직히, 사실은, 너무' -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별것 아니요 가짜요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2. 틀리다

판단·비난·책망·탓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격이 너무 틀리다 → 성격이 매우 다르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때와는 많이 틀려 → 아주 달라

용도가 틀리다. 문화가 틀리다. → 용도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틀리다 : 그르다, 어긋나다, 잘못되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답이 아니다.

다르다 : 어떤 것과 같지 않다.

3. ~다라고, ~다라는

'라고'나 '라는'은 직접인용절에 쓰는 말입니다. 간접인용절에 쓰면 어색합니다.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해 보고 싶었습니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차이가 있음을, 있다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원하겠더라는 약속을 지켰다. →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후원하겠더라 약속을, 후원 약속을 지켰다.
 결국 책임지지 않겠더라는 말입니까? →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회사업가는 가난하다라는 주장 →가난하다는 주장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라는 선거 공약 → 늘리겠다는 선거 공약
 철수는 “사회사업은 발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철수는 “사회
 사업은 발로 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직접 인용) = 철수는 사회사업
 은 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 인용)

직접 인용절 다음에 '라고'를 쓸 때는 바로 붙여 쓰고, '하고'를 쓸 때
 는 한 칸 띄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 글에는 직접 인용절 다음에 한
 칸 띄고 '하고, 하니, 하거늘' 같이 '하고'만 썼다고 합니다. 성경책에도 그렇
 게 쓰여 있습니다.

인용절 다음에 '라고'를 붙이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품위 없는 말투라
 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따금 직접 인용절에도 '라고'를 붙여 쓰기를
 꺼립니다. 하물며 직접 인용절도 아닌 곳에 '~다라고', '~다라는' 따
 위를 붙임이겠습니까?

4. 갖다, 가지다

~하는 시간을 가지다. → ~하다.
 모임을 갖는다. → 모인다.

평가회를 가졌다. → 평가회를 했다. 열었다. 개최했다. 평가했다.
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 팀장들이 모여

효력을 가진다. → 효력이 있다.

자유를 갖는다. → 자유가 있다.

관계를 갖다. → 관계하다, 관계를 맺다.

공원에서 홍보 행사를 가졌다. → 홍보했다.

공부방 활동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공부방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공부방 활동을 설명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지금부터 발표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발표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읍시다.

5. 수동태를 직역한 듯한 표현

공부방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 공부방을 교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명서가 교부되면 → 복지부가 증명서를 교부하면

되어지다 → 되다 → 하다

단순 업무에 배치되어진 자원봉사자 → 배치된 배치한 자원봉사자

~되어야 합니다.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해야 합니다. ~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요구된다. 있어야 한다. → ~해야 한다.

신속한 지원이 요구된다. 있어야 한다. →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시정할 필요가 있다, 시정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적절한 시책이다.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사후관리를 요망하는 →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속적인 개입을 요하는 일 → 꾸준히 개입해야 하는 일

~을 필요로 한다. (타동사 need를 직역) → ~이 필요하다. (우리말 형용사)
A need B (A가 B를 필요로 한다. 영어식 표현) → A에게 B가 필요하다. (우리말)

생계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 상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 → 사회사업가가 도와야 할 사람들

맡겨진 일, 주어진 일 → 맡은 일, 시킨 일

복지관에서 실시되어지는 프로그램 → 실시되는 → (실시)하는

놀이치료로 고쳐질 수 있는 행동 → 고칠 수 있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 하루 빨리·바빠 고쳐야 한다.

담당자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
→ 권한을 주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제공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진 규정에 의해 교체됩니다. → 이사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어진다. →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찬스가 주어지면 → 기회를 얻으면

해결중심면접은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6. 뜻을 혼동하여 잘못 쓰는 말

접수하다, 접수시키다 : 제출하다. 내다. 넣다. 보내다. 주다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접수하다 → 신청서를 제출하다.

자문하다 = 여쭙다. 묻다. 조언을 구하다. 의논하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다. 자문을 구하다 → 자문하다.

자문해 주다 → 조언해 주다

※ 자문을 받거나 자문에 응하는 쪽이 전문가입니다.

회장의 결제를 받다 → 결재를 받다. 재가를 받다

공문서에 결재하다. 결재 서류

대금을 결제하다. 카드 결제

위탁운영 : 수탁운영

OO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 수탁운영 (복지관은 주로 민간 법인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즉 수탁하여 운영하지요.)

쫓다 : 좇다

쫓다 = 추격하다. 몰아내다. 물리치다

좃다 = 추구하다. 따르다.

예 : 명령, 선례, 관습, 남의 의견, 국민의 뜻, 하나님의 뜻, 유언, 명예, 행복, 이상 따위를 좃아...

때가 이르다 : 속도가 빠르다

일찍 정한 때보다 앞서 ↔ 늦게 : 빨리 ↔ 천천히

이르면 주말쯤, 일러야 내일,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 이른 시일 내에? →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 멀지 않은 때에, 곧, 서둘러

작다 ↔ 크다 : 적다 ↔ 많다

잊다, 잊어버리다 forget : 잃다, 잃어버리다 lose

들어내다(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제거하다) : 드러내다(보이게 하다, 밝히다)

벌이다(늘어놓다. 차리다. 시작하다) : 벌리다(넓히다. 퍼다. 열다)

가르치다 teach : 가리키다 point, indicate, refer to

~으로서 ~로서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 as ~

~으로써 ~로써 : 수단이나 도구 또는 재료 by ~

'~로, ~으로' = '~으로서 ~로서' + '~으로써 ~로써'

~함으로 (수단) : ~하므로 (이유)

와중에

명상하는 와중에 → 명상하는 도중에, 명상하는 중에, 명상하다가

※ '와중'은 소용돌이치듯 시끄럽거나 어수선하거나 복잡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 나은 서비스, 색다른·특별한·개성 있는 서비스

우연찮게(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 우연하게, 우연히

조출한 선물, 조출한 행사... → 작은 선물, 간소한 행사

조출하다 = 아담하고 깨끗하다. 깔끔하고 얌전하다. 말쑥하고 맵시 있다. 그러므로 제 것을 조출하다고 하면 자화자찬이 됩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 인재를 적절한 자리 알맞은 곳에 배치하다.

적재적소는 ‘알맞은 재목을 알맞은 자리에’라는 뜻입니다.

인수인계 받다 → 인계인수하다. 주고받다.

인계하다 = 넘겨주다. 인수하다 = 넘겨받다.

인수인계는 물려받고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넘겨받는 것, 둘 다 포함합니다.

일정 정도 → 어느 정도, 얼마쯤, 꽤, 상당히, 상당한

사회사업가의 인품은 서비스 효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다. →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 얼마쯤 책임이 있다. 책임이 크다.

7. 중복 표현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결연을 맺다 → 결연하다. 인연을 맺다.

결실을 맺다. →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중요시 여기다 → 중시하다, 중요시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접수받다, 인수받다 → 접수하다, 인수하다, 받다, 넘겨받다.

제공해 주다 → 제공하다

우수상을 수상하다 → 우수상을 받다.

가능할 수 있다 → 가능하다

지속가능할 수 있는 → 지속 가능한, 지속할 수 있는

함께 동행/동참/공존하다 → 동행/동참/공존하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 솔선수범해야 한다.

※ 솔선수범하다 = 남보다 앞서 행하여 본을 보여 주다

현안문제 → 현안, 걸린 문제

소위 말하는 → 소위, 이른바

평소 때보다 → 평소보다

매년마다 → 매년

매주 월요일마다 → 매주 월요일 / 월요일마다

과반수 이상 → 과반수

되어지다 → 되다 | 보여진다 → 보인다

안정화시키다 → 안정화하다. 안정시키다. 활성화시키다→활성화하다. 강

화시키다 → 강화하다. 단순화시키다 → 단순화하다

~이후부터 ~이전까지 / ~한 후부터 ~하기 전까지

→ ~이후 ~이전 / ~부터 ~까지 / ~한 후 ~ 하기 전 / 하기까지

8. 시키다 =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하게 하다

만약 남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금지시키다, 교육시키다, 개선시키다, 거짓말시키다, 성공시키다, 소개시키다, 억제시키다, 연장시키다, 접수시키다, 주차시키다, 차단시

키다, 축소시키다, 확대시키다, 제외시키다, 격리시키다

→ 금지하다, 교육하다, 개선하다, 거짓말하다, 성공하다, 소개하다, 억제하다, 연장하다, 제출하다, 주차하다, 차단하다, 축소하다, 확대하다, 제외하다, 격리하다

환경을 훼손시키다. 파괴시키다 → 훼손하다. 파괴하다

9. 고민하다 = 고통스럽게 변민하다, 괴로워하고 애타우다.

고민하다 → 숙고|숙려하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사고|사유|사색하다. 검토하다. 걱정|염려하다. 반성하다. 성찰하다. 살피다. 헤아리다. 궁리하다. 마음 쓰다. 애쓰다. 회의하다...

고민 → 깊은·진지한 생각, 고려, 성찰, 사유·사색·사고, 궁리, 연구, 반성, 회의, 고뇌, 걱정, 숙고|숙려, 탐구

생각하다 → 여기다, 판단하다, 상상하다, 궁리하다, 고뇌하다, 꿈꾸다, 느끼다, 추측하다, 짐작하다, 헤아리다, 염려하다, 우려하다, 의아해하다, 의심하다, 검토하다, 성찰하다, 구상하다, 믿다, 확신하다, 추구하다, 염두에 두다...

쳐다보다 = 올려다보다 → 바라보다, 내려다보다, 들여다보다, 내다보다, 노려보다, 훑쳐보다, 응시하다, 관찰하다, 살펴보다...

10. 여러 가지

1) 바람, 바래요, 바랬는데... (바래다 = 색이 변하다, 배웅하다) → 바람, 바라요, 바랐는데

2) 생각컨대 → 생각건대 / 생각치 못한 → 생각지 못한
'ㄱ, ㅅ, ㅂ' 다음에서는 '하'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거든 되도록 준말을 쓰지 말고 본말을 쓰십시오.

3) 삼가하다 → 삼가다. 삼가시기 바랍니다.

4) 몇일 → 며칠,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

5)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이'로 쓰는 단어 : 깨끗이, 따뜻이, 뚜렷이, 지긋이, 반듯이, 느긋이, 버젓이 (대개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말)

* 꼼꼼이, 꼼꼼히

6) 지속 가능한 → 지속할 수 있는

7) 역할 → 역할(役割) → 구실, 노릇, 할 일

8) 웬지 → 웬지 (왜인지)

9) 우뢰와 같은 소리 → 우레와 같은 소리

10) 효과가 금새 나타나지 않는다. → 금세 (←금시에)

11) 설레이다 → 설레다. 설레어(설레), 설레니, 설레는, 설레어서, 설렌다, 설렘 목메이다 → 목메다. 목메어 울다, 목멘 소리로
해매이다 → 해매다.

12) 들러 : 들러

지나는 길에 들러 차 한 잔 하고 가십시오. → 들러

‘들러’는 ‘들르다’의 활용이고, ‘들려’는 ‘들리다’의 활용입니다.

13) 예요 : 예요

것이예요 → 것이예요, 아니예요 → 아니예요, 아녜요

~이예요 → ~이예요. ~이어요. ~예요. ~여요

14) 되야 → 돼야, 되요 → 돼요 (돼=해 | 되=하)

잘 되야 할 텐데 → 잘 되어야/돼야 할 텐데

내일까지 하시면 되요. 돼죠. → 되어요. 돼요. 되지요. 되죠.

15) 께요 → 게요

할께요, 께예요 → 할게요, 거예요, 해 줄게요, 기다릴게요, 볼게요.

16) 여러분들 → 여러분 / 우리들, 저희들 → 우리, 저희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무리를 높여
서 이르는 말이므로 이미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 서로

서로가 서로를 → 서로 / 스스로가, 스스로를 → 스스로 / 모두가 모두를 → 모두
그대로의, 그대로를, 나름대로의 → 그대로, 나름대로 (‘서로, 스스로, 모두’ 이
세 가지는 일부 국어사전에 명사로도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디 부사가 아니었을
까요?)

18) 보다, 보다 더 → 더

보다 나은 방법 → 더 나은 방법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더 구체적으로

19) ~이지 않다 → ~이 아니다

지나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동사를 부정할 때 ‘~지 않는다’고 하고, 형용사를 부정할 때 ‘~지 않다’고 합니다. (예: 주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이다’의 부정 서술은 ‘~이지 않다’가 아니고, ‘~가 아니다, ~이 아니다’입니다. (예: 직원이지 않다 → 직원이 아니다.)

20) 형용사를 부정하기

안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안 효율적이다 → 효율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동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안'이나 '아니' 또는 '못'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나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지 않다. ~지 아니하다' 형태로 씁니다. 높지 않다. 편치 않다.

21)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 동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해 주십시오. * 지금 부탁하지, 왜 부탁드리겠다 하는지요? 언제 부탁할 계획인지요?

대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쭙겠습니다. → 여쭙고 싶은 소원이나 여쭙겠다는 계획을 말하기보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어 보세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이 되겠습니다. → ~입니다.

저기가 바로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 (장차 그렇게 될 예정이거나,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담실이라면) 상담실입니다.

참가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 30만 원입니다.

다음 발표자는 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 국장님입니다.

23)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24) 다름 아니다, 틀림없다

~에 다름 아니다. → ~와 다름없다.

상거래에 다름 아니다. → 상거래와 다름없다.

~에 틀림없다. → ~이 틀림없다.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
이 중요한 일입니다.

25)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직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직원 교
육은 매우 중요하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26) 영향력을 끼치다. → 영향을 끼치다. 영향력을 지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27) 에 있어서 / ~에 있어서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 제공할 때 | 제공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원칙 →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 대상 선정 원칙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는 방법론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 재
가복지와 시설복지는 방법이 다르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생태 관점은 매우 유용하다 → 실천에서

공부방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부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가 곧 공부다 → 아이들에게는 / 아이들은

28) 데 :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으로 쓸 때는 띄어 씁니다.

아이들이 받는데 익숙해져서 → 받는 데

사회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높이는 데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보호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강화하는 데

아이 한 명이 자라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 자라는데

29) 입장

→ 처지, 신분, 원칙, 방침, 의지, 주장, 요구, 견해, 관점, 생각, 뜻, 결심, 인식, 판단, 자세, 태도, 쪽, 편, 관계, 이익…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 이용자가 보면, 이용자 쪽, 이용자 처지에서 보면
교수와 학생의 입장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 교수 학생 관계로 | 교수와 학생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다. → 처지·주장·견해·이익을 대변하다.

회의를 하자는 입장과 그냥 피곤하니 자자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
회의를 하자는 의견과 피곤하니 그냥 자자는 의견이 대립~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 부탁하는 사람은, 부탁하는 처지에서는

30) 지양

지양하고 → 중지하고, 버리고, 삼가고, 하지 않고, 그만두고, 줄이고, 고치고, 개선하고, 금지하고…

무책임한 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시중을 지양하며, 보조기구나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남은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 → 지나치게 시중하지 않고, 보조기구나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31) 불이익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지 → 손해 보지 않을까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32) 물론 :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렇다는 의미인데, 그저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과연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러한가 살펴서 써야 합니다.

33) ~부터 시작?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 내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접수합니다.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 내일 정상화합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합니다.

내일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 내일 마감합니다. 내일까지 접수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작”은 하는 순간, 그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34) 동사를 쪼개지 않고 온전하게 쓰기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올 겁니다.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합니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 가입했습니다.

35) 바꿔 말하기 -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중간에 자기 말을 스스로 끊어 “그러니까...”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자꾸 바꿔 말하지 말고, 우선 한 문장을 끝내고 나서 필요하면 그때 보충하여 (혹은 다른 식으로) 설명하십시오.

11. 고맙다와 감사하다

감사한 일, 감사한 말씀 → 고마운 일, 고마운 말씀

감사하신 분 → 고마우신 분

'고마운 일'은 그 일에 대한 나의 마음 또는 그 일 때문에 상대에게 느끼는 '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사한 일'은 '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미 그 일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신 분'은 그분께서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께 은혜를 입어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분은 고마우신 분이고, 나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라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미 감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감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참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인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사 행위를 치켜세우는 자화자찬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도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를 높이는 꼴입니다.

요즘은 '감사하다'를 형용사 자리에 쓰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형용사 용법을 추가한 국어사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고맙습니다.”보다 격식을 갖춘 인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우나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이에는 “감사합니다.” 해야 어울린다는 주장입니다.¹⁾ 뜻은 같은데 '고맙다'는 순 우리말이고 '감사하다'는 일본식 한자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행위입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어떠한다는 형용사이고,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동사입니다.

미안한 일과 사과한 일이 다르고, 미안한 사람과 사과한 사람도 다르지요. 고마운 일과 감사한 일이 다르고, 고마운 사람과 감사한 사람이 다른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와 '고맙다'는 형용사이고, '사과하다'와 '감사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쓰려고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때는 형용사 '고맙습니다.'를 쓰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행위를 말할 때는 동사 '감사합니다.'²⁾를 씁니다.

1) '미안하다'와 '죄송합니다'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같은 뜻의 형용사인 데, '죄송합니다.'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높은 분께 사과할 때는 '미안합니다'대신 '죄송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말이 고맙다는 뜻) → 감사합니다.

고마운 줄 안다, 고맙게 여긴다, 고마워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후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에 대해,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
니다.

후원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디 도와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감사하기로 약속했음에
랴. / (빈 약속일랑 하지 말고 다만) 정중히 부탁합니다. 도움 받은 후에는 잊지 말고 감
사합니다.

짧게 한마디로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해야 할 대상을 가리켜 '감사한 일, 감사한 말씀, 감사하신 분'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저의 감사 행위를 높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거나, 저의 말을 높여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 감사드리다 → 감사하다.

공손하게 하려고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므로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기도 꺼림칙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감사드리다'를 쓰지 않고 '감사하다'만 씁니다.

니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 지나친 겸손, 모호한 표현

좋은 것 같아요 → (이 표현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은 “좋아요”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 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 저는, 제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 일본은, 일본의 경우는

~하는 시간(기회, 여행, 세미나, 방학, 실습...)이 되다. → 그 시간(기회, 여행, 세미나, 방학, 실습...)에 ~하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잘 누리시기/배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지역복지 실무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순례·실습·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시간에 그 순례·실습·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복지 실무를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순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순례를 통해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 ~했습니다.

오늘 저의 광활 첫 단추를 풀 수 있었습니다. → 풀었습니다. 끼웠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풍성해지도록

여름학교를 통해 OO이와 소통할 수 있었고, OO이 어머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 소통했고, ~ 가까워졌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여러분, 우리, 복지인, 학과, 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기 바랍니다. ~하자, ~하고 싶다, ~하겠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번 활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꿈·소망·욕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이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 돕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도록 합시다, ~도록 하겠습니다. → ~합시다, ~하겠습니다.

가도록 합시다. → 갑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겠습니다.

“~하도록 한다“는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는 뜻입니다.

~기로 하겠습니다. →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침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작합니다. 마침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면 좋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합시다. 하고 싶습니다.

부분 → 점, 것

그런 부분... ‘거시기’와 마찬가지로 모호합니다. 점, 것으로 바꾸어 말하거나, ‘부분’이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하여 말하는 게 좋습니다.

것들, ~들: 복수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뭉뚱그려서 혹은 과장하여서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이것저것 예시하여 나열할 때 이런 군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못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성실하다, 냉소적이다, 건방지다, 교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어쨌든’도 이런 느낌을 주므로 삼가야 합니다.

※ 왜 그럴까요?

좋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합니다.

꼭 집어 말하지 않고 “~같은 경우에는”, “부분”, “~것들” 이렇게 뭉뚱그려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겠다 말하지 않고 “~되어야 한다, ~이 요구된다, ~이 있어야 한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엇을 배웠다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 이야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배웠다는 건지 안 배웠다는 건지 못 배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고민했는지, 고민 결과 무엇을 얻었는지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소하겠다고 하지 않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식사하자고 하지 않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지 않고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합니다. 다시 오지 않더라도 죄책감은 없겠군요.

‘~해야 한다. ~이다. ~하고 싶다. ~하려 한다.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이나 의지를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하지만 꼭 그렇다고 주장 또는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의지나 소신은 없다는 듯 슬그머니 꿈무늬를 사립니다. 생각의 내용을 직접 밝히기보다는 ‘생각한다. 생각을 한다.’는 행위에 부속시킴으로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피하려 합니다.

~하겠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홍보했다고 하지 않고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홍보 효과에 자신이 없다는 듯, 홍보 효과에 대해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제3자가 해설하듯 남 말하듯 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에두르거나 비켜갑니다.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 버립니다. 자신을 문장의 주어로 내세우지 않고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게 보일까 봐, 무례하게 보일까 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손한 말씨,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3. 요결에서 없앤 말, 바꾼 말

1)결언, 공작, 자연주의, 도모...

2)가령 → 예를 들어

3)감안하다 → 헤아리다. 고려하다. 살피다.

4)가급적 →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되도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5)ㄹ 수도 있습니다. → ~ㄹ 수 있습니다. '도'를 많이 뺐습니다.

6)보통사람 → 보통 사람 → 여느 사람

7)보조동사는 띄어 썼습니다.

'도와주다'는 하나의 동사이므로 붙여 썼습니다. '녹아들다'도 하나의 동사이므로 붙여 썼습니다. '나누어 주다'에서 '주다'는 보조동사이므로 띄어 썼습니다.

8)것

~ 것인지 → '~인지' 또는 '~ 건지'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할 것인지 → 할지

~ 것을 → '~걸'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 것은 → ‘~건’으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 것이 → ‘~게’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것’이 들어간 곳을 모두 살펴서 고쳤습니다.

‘것’이 들어간 낱말을 없애거나, 다른 말로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하는 것 → ‘~하기, ~함’처럼 앞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9) 도모하다 → ‘이루다’ 따위로 바꾸거나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10) 미명하에 → ~한다고, ~한답시고, 이름으로, 구실로, 핑계로

11) 소고 → 작은 바람, 짧은 생각

12) 및 → 와, 과

13) 등 → 따위, 같이, 같은, 처럼

14) 받다

‘동사성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붙여 적습니다.

: 사랑·후원·칭찬·존중·감사·상찬·추천·소개·관리받다.

15) 당하다

‘~당하다’는 명사에 붙여 적되, 동사성 명사가 아니어도 붙여 적습니다. 예: 고난당하다.

16) 때문과 까닭

~ 때문 … : ~이 원인 또는 이유, …은 결과 : ~는 명사 또는 동명사형

~ 까닭 … : ~은 어떤 원인 또는 이유의 결과 : ~는 관형어 (형용사형)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다. →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 =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그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김’의 결과·소산이지 원인·이유가 아닙니다.

17) 역할 → 구실, 소임, ‘할 일’로 순화. 요결에서는 구실, ‘할 일’로 썼습니다.

18) 구실² → 핑계로 순화. 요결에서는 기회, 소재, 명분으로 바꿨습니다.

19) 만족해하다 → 만족하다 (동사: 흡족하게 여기다, 형용사: 마음에 흡족하다)

20) 독립적으로 → 따로, 따로따로

21) 우려 → 걱정

22) 세대 → ‘가구’나 ‘집’으로 순화

23) 명찰 → 이름표

24) 경우

→ 빼거나, 앞뒤 헤아려 다르게 쓰거나, ‘때, 일’ 따위로 바꿉니다.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 최선일 수도, 최선일 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 필요할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보통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제공하기도 하는데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되는 일이
이용할 경우 → 이용한다면
준비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떤 경우라도 ~해야 합니다. → ‘어떤 경
우라도’를 빼버립니다.
봉양 받을 경우 → 봉양 받는다면
대개의 경우 → 대개
하게 될 경우 → 하게 되면

25) ~의

~의 → ‘의’를 빼도 괜찮은 곳에서는 모두 뺐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람살이 → 지역사회 사람살이
지역사회의 공생성 → 지역사회 공생성
사회사업의 개념 → 사회사업 개념
자주·공생의 복지 → 자주·공생 복지, 자주·공생하는 복지

26) ~적

사회사업적 의미 → 사회사업 의미

27) 보통 → 여느, 으레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 여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보통 가정처럼 설을 쇠게 → 여느 가정처럼 설을 쇠게

28) 하였 → 했

하였습니다. → 했습니다.

29) ‘동안’은 띄어 쓰고, ‘간’은 붙여 씁니다.

3개월 동안 | 3개월간

30) 로 하여금 → 가

하도록 → 하게 | 도록 → 게

31) ~이요 → 이고

32) 또한, 역시 → 지우거나 ‘~도’로 조사를 바꿨습니다.

33) 또는 → ‘~이나’ 따위로 바꿨습니다.

34) 거니와 → 지우고 문맥에 따라 적당한 말로 바꿨습니다.

35) 한편, → 지웠습니다.

3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하다. 기초하다. 토대하다.’
를 추가했습니다. ‘바탕하다. 기반하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글 좋은 글

2005년 3월 21일 황소웅 자음 |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언론에서 글쓰기 경력 30년, 대학에서 글쓰기 지도 10년
황소웅 교수의 글쓰기 왕도 10조 강의

1. 왕도 10조

1) 제1조 짧게 쓴다

긴 문장은 과감하게 끊자.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얘기만 담는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생각만 얘기하자. 군더더기를 없앤다. 수식어도 가급적 줄인다. 주어와 술어 사이는 짧을수록 좋다.

→ 복지요결 문장은 대개 짧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쓴 글에는 긴 문장이 있습니다. 빼도 되는 수식어가 아직도 보입니다. 더 다듬어야겠습니다.

2) 제2조 쉽게 쓴다

어려운 문자, 고사성어, 영어, 한자, 외래어는 가급적 피한다. 고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속한 느낌을 준다. 비어, 속어, 유행어, 사투리, 인터넷 약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 품위를 떨어뜨리고 천박한 인상을 준다.

→ 복지요결에서 한자와 영어를 모두 뺐습니다.

3) 제3조 담백하게 쓴다

“김치 깎두기 같은 글을 써라.”

미문(美文)은 타락일 수도 있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감정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 담백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볼 때마다 다듬고 있습니다.

4) 제7조 같은 말 반복 사용을 피한다

한 문장에서 동어를 두 번 이상 쓰지 말자. 동일 용어를 써야 한다면 동의어로 바꾸는 게 좋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앞 문장에서 썼던 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같은 내용, 같은 의미의 말 역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외 : 강조 효과를 위한 반복)

→ 볼 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5) 제8조 논리적으로 쓴다

논리의 모순이나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어와 구절,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서론 본문 결론이 유기적으로 논리에 맞게 전개되어야 바른 글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 논리,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6) 제10조 문단을 구분한다

문단을 짧게 만들고 자주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문단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자.

→ 복지요결은 문단을 자주 나누고 문단 사이를 벌립니다.

2. 바른 글을 쓰려면

1) 버려야 할 악습

① 일본식 한자말

입장 → 처지, 형편, 생각, 태도, 주장 따위로 바꿔 써야 한다.

~에 다름 아니다 → ~와 다름없다

~에 틀림없다 → 다른 말로 바꿔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야 한다.

② 영어식 표현

필요로 한다, 요구된다. → 필요하다

③ ‘역전앞’식 중복 표현

결실을 맺다, 순찰을 돌다 → 열매를 맺다, 순찰하다

부상을 입다 → 부상하다 | 다치다

주어진 여건, 남은 여생, 잔존해 있다 → 여건, 여생, 잔존하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 이상, 완전히 근절하다, 이질감을 느끼다, 대강의 개요, 여러 가지 잡다한, 지나온 과거, 함께 공존하는, 매호마다, 접수받다...

‘때’를 붙이기 좋아하는 습관 : 평소 때보다, 삼국시대 때에, 일제시대 때에, 농번기 때에 등에서 ‘때’는 불필요한 말이다.

④ ~화되다

‘화’는 한자로 化이고 그 뜻이 ‘되다’이므로 ‘~화되다’는 중복 표현이 명백하다. 잘못된 것이다. ‘~화하다’로 고쳐 쓰도록 하자. 어떤 경우 든 ‘화’와 ‘되다’를 겹쳐 써서는 안 된다.

‘~화하다’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뜻으로 쓰면 자동사, 무엇을 어떻게 되게 한다는 뜻으로 쓰면 타동사. ‘우리 사회가 민주화했다’고 쓸 수도 있고 ‘우리 사회를 민주

화했다'고도 쓸 수 있다.

⑤ '시키다'식 습관

거짓말시키다, 야기시키다, 제외시키다, 구속시키다... :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하다'로 쓰자.

⑥ 억지 피동형

보여진다 → 보인다

뒤집어지다 → 뒤집히다

고쳐져야 한다 → 고쳐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 변해야 한다

손으로 만들어진 → 손으로 만든

서구어의 직역투라고 할 '~지다'는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하고, 쓰지 않으려면 생각 자체를 피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바꿔야 한다. 능동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동의 주인공이 사물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물주(物主) 구문에서 인주(人主) 구문으로 바꿔 써야 능동형 문장이 되고 그래야 우리말답게 되는 것이다.

2) 헛갈리는 유사어

① 다르다 : 틀리다

② 붙이다 : 부치다

③ 맞추다 : 맞히다

④ 일절 : 일체

⑤ 넘어 : 너머

⑥ 빠르다 : 이르다

⑦ 늘이다 : 늘리다

⑧ 별이다 : 별리다

⑨ 띠다 : 띠다

⑩ 째 : 채

⑪ 이 : 히

어간에 ‘하다’를 붙여 용언이 되는 경우는 ‘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로 적는다.

예외 1) 어간이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모두 ‘이’다. : 깨끗이, 빠듯이, 번듯이, 따뜻이, 뚜렷이, 버젓이, 지긋이 등

예외 2) 깊숙이, 큼직이

⑫ 든 : 던

‘든’은 선택이나 조건, ‘던’은 시간과 관계있는 과거 시제

⑬ 에 : 에게

‘에’는 무정물(無情物), ‘에게’는 유정물(有情物)에 붙는다. 돌이나 금속 같은 것은 무정물, 식물은 무정물, 국가나 사회단체도 무정물, 동물은 사람과 함께 유정물

⑭ 을, 열 : 룰, 렬

모음이나 받침 뒤에서는 ‘을, 열’로 그 외에는 모두 ‘룰, 렬’로

비을, 실패을, 백분을 | 인상룰, 확룰, 낙찰룰

나열, 치열, 비열, 선열, 분열, 이문열(이름) : 김창렬, 선동렬

3) 합성어 ‘사이시옷’

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 오랫동안, 하룻밤, 나뭇가지, 모깃불, 바닷가,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꺾병, 셋강, 자릿세, 전셋집, 텃줄, 핏기, 화젯거리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경우 : 아랫니, 꺾날, 제삿날, 훗날, 뒷머리, 냇물, 빗물, 양젯물

③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인데 받침은 ㄴ으로 나는 경우 : 뒷일, 베갯잇, 깻잎, 나뭇잎, 가윗일, 예삿일, 훗일

④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몇 개
숫자, 횡수, 곳간, 셋방, 찻간

* 오랜만에, 오랫동안

4) 기타

① ~던지 : 과거 회상 - 얼마나 놀랐던지
~든지 : 내용을 가리지 않거나 선택할 때 - 가든지 말든지

② 명사+째 (전부) : 통째로, 넝쿨째
동사+채 (하고 있는 그대로) : 앉은 채로

③ ~ㄴ지 :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띄어 쓰고 나머지는 붙여 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지 말지, 갔는지도 몰라
떠난 지 한참 됐다. 사라진 지 오래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이
루었다.

④ ~데, ~_데(에) : 뒤에 '에'를 붙여서 어색하면 '데'를 앞말에 붙여
쓰고, 어색하지 않으면 띄어 씁니다.

⑤ 명사+조사이면 붙여 쓰고, 동사·형용사·관형사+의존명사이면 띄
어 씁니다.

하늘만큼, 오늘만큼, 너만큼 | 할 만큼 했다.

나는 나대로 | 하고 싶은 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 할 뿐 아니라, 복지를 이루게 도울
뿐 아니라 또한 더불어 살게 도와야 합니다. 바라볼 뿐입니다.

⑥ 한글 수사 _ 단위 의존명사 | 아라비아 숫자+단위 의존명사

한 다스 | 1다스

오천 원 | 5000원

십여 년 | 10여년

수 년간 | 2주간

대여섯 명 | 5~6명

* 한두 명, 두어 번 - 수 관형사가 두 개 이상 결합한 단어는 붙여 씁니다.

⑦ 간

형제간, 이웃 간, 친구 간, 한국과 일본 간

* 합성어로 인정되어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만 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동기간/모녀간/형제간/자매간'은 합성어로 인정되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지만, 합성어가 아닌 경우에는 '친구 간', '사제 간'과 같이 각 단어를 띄어 적습니다

⑧ 한번, 한 번

빼도 되면 한번(=일단), 빼면 안 되는 경우 한 번

* 두 번, 세 번, 이렇게 셀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띄어 씁니다.

한번 만나 봐요. 한번 해 봐~ | 한 번 만났다.